

2018
Vol. 4
통권 제6호

Daejeon Sejong
Research
Institute



SEJONG — INSIGHT

세종인사이트



SEJONG RESEARCH INSTITUTE

2018
Vol. 4



CONTENTS

- 03 세종시 산업단지 관리 개선방안 | 김성표 연구위원
- 06 세종시 청년 1인 가구 현황과 그 시사점 | 최성은 연구위원
- 09 세종시 역내 불균형 실태 진단 | 지남석 연구위원
- 13 세종시 축산악취 개선방안 | 이윤희 연구위원



I. 제안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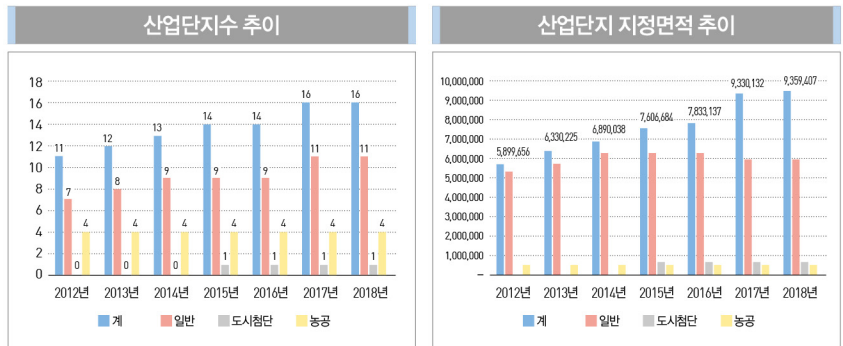
산업단지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

- 세종시에는 과거 연기군과 청원군에 있던 산업단지가 편입되었으며 새로운 산업단지도 조성되어 옴
- 산업단지의 증가로 인하여 효율적인 관리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의 경우 노후화에 따른 시설 재정비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임
- 세종시 산업단지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

II. 산업단지 현황

산업단지의 증가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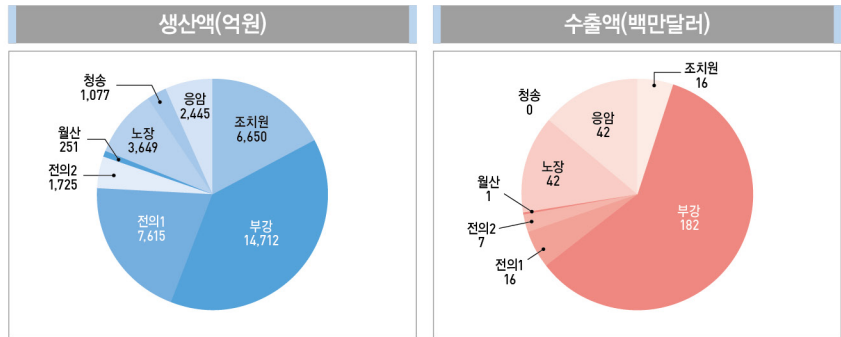
- 세종시 산업단지 수는 2012년 11개에서 2018년 16개로 증가하였고, 지정면적은 2012년 5,899,656m²에서 2018년 9,359,407m²로 3,459,751m² 증가함



[세종시 산업단지 현황]

-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 가동업체는 131개이며, 고용인원 10,299명으로 나타남
- 2015년 기준 세종시 산업단지 생산액은 3조 8,124억 원이며, 이는 전체 생산액의 45%로 추정됨¹⁾
- 2015년 기준 세종시 산업단지 수출액은 3억 6백만 달러로, 전체 수출 금액의 33%²⁾를 차지함

1) 지역내총생산은 2015년 8조 4716억원으로(통계청, 2016년 지역소득(잠정) 보도자료, 2017.12.22.) 추정
 2) 2015년 기준 세종시 수출금액 904백만 달러(무역협회 KITA.net)



[산업단지 생산액과 수출액(2015년)]

산업단지 관리의 문제점

- 세종시 산업단지 증가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관리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특히 산업단지 공공시설의 관리주체가 불명확하고, 공공시설 사용료에 대해 입주 업체들이 부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
- 또한 산업단지 관리를 맡고 있는 입주기업체협의회와 관리사무소 기능이 관리업무에 치중되어 있고 산업단지별로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

III. 정책제언

산업단지 시설관리 업무주체의 명확한 설정

-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 이관이 필요함
- 공공시설 관리가 산업단지관리계가 아닌 해당 시설물 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 이관과 협조가 필요함
- 산업단지 내에 있는 주요 공공시설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관리해야 할 업무와 관리 사무소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

산업단지 공공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

-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한 지원을 정상화해야 함
- 산업단지 공공시설은 세종시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세종시에서 부담해야 함
- 공공시설인 도로, 상하수도 시설, 폐수처리 시설, 공원, 가로등, 가로수에 대한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은 세종시에서 부담함
- 입주업체들은 상하수도 사용료, 폐수처리시설 사용료, 공장 전기료 등을 부담함



- 산업단지 내에 있는 주요 공공시설에 대해서 일정금액 이상이 소요되는 수선의 경우 세종시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
- 예산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조성된 산업단지(전의산업단지, 조치원 3공구, 명학)의 경우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활용하고, 민간개발방식으로 조성된 곳은 주민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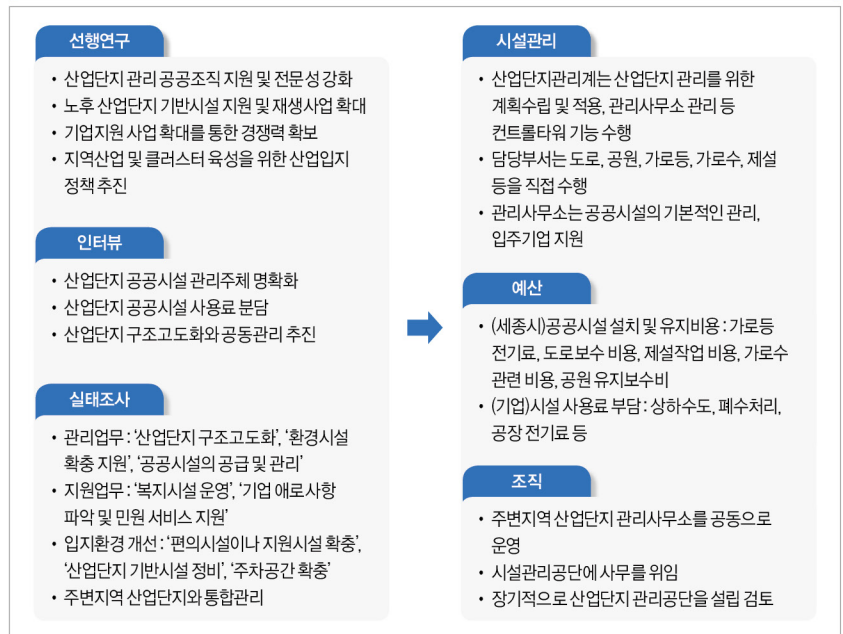
관리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관리조직 신설

-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산업단지 관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
- 체계적인 산업단지 공동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관리기관을 활용하거나 산업단지 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음

입주업체 지원업무 강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

- 산업단지 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입주한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업무를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함
- 산업단지 관련 정보, 계획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

세종시 산업단지 관리 개선방안 과제



I. 서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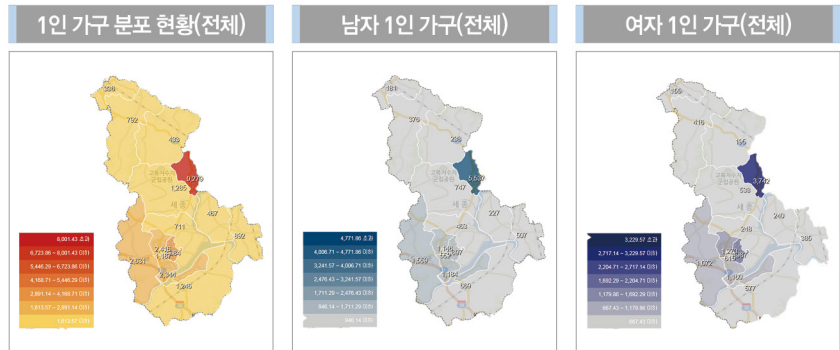
● 세종시 청년 1인 가구 현황 분석의 중요성

- 2017년 12월말 「주민등록인구통계」 기준, 전체 109,490가구 중 1인 가구는 35,209가구 (약 32.2%)로 조사됨
- 고령층 1인 가구가 많은 타 시·도와는 달리, 세종시는 20~30대 청년 1인 가구가 많고, 증가율도 높은 특성을 보임. 그러나 현재 세종시에는 1인 가구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 기초자료가 거의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
- 따라서 이 글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간한 「세종시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지원방안」보고서 (2018년 11월)가 담고 있는 주요한 현황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, 세종시의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확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함

II. 세종시 청년 1인 가구 현황 분석

● 세종시 읍·면·동별 1인 가구 거주 분포 현황

- (전체) 조치원읍 > 도담동 > 장군면 > 아름동 > 한솔동 > 연서면 > 금남면 > 종촌동 > 부강면 > 전의면 > 연기면 > 연동면 > 전동면 > 소정면 순으로 1인 가구가 다수 거주함
- (성별 특성) 남녀 모두 조치원읍에 가장 많이 거주함. 여성 1인 가구주의 경우, 전체 여성 1인 가구주의 약 40%정도가 동 지역에 거주할 정도로 남성에 비해 동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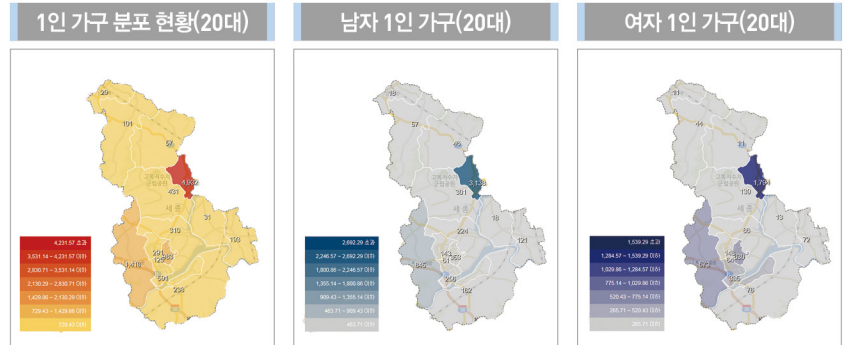
자료: 최성은 외(2018), 《세종시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지원 방안》, 24~32쪽(아래 ※참고자료 참조)

● 20대 1인 가구 거주 분포 현황

- (20대 거주지역) 조치원읍 > 장군면 > 도담동 > 한솔동 > 연서면 > 연기면 > 아름동 > 금남면 > 부강면 > 종촌동 > 전의면 > 전동면 > 연동면 > 소정면 순으로 20대 1인 가구의 거주비율이 높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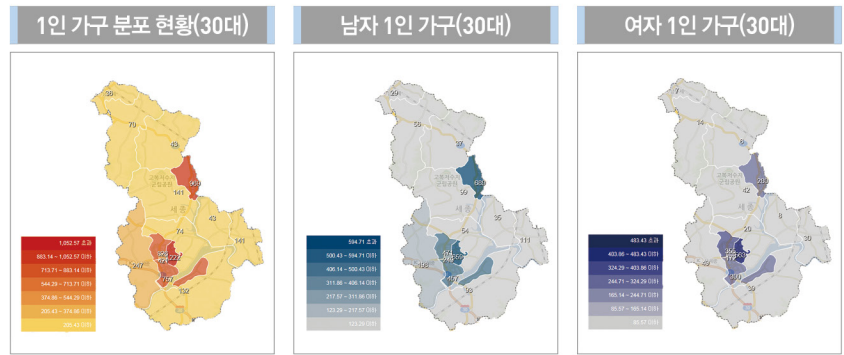
- (성별 특성) 20대 1인 가구는 남녀 모두 조치원읍에 가장 많이 거주함. 읍·면 지역에는 남성 1인 가구주 거주비율이 여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(읍: 남성 54.6%, 여성 45%, 면: 남성 31.1%, 여성 25.6%). 반면, 동 지역의 경우, 여성 1인 가구의 거주비율이 남성보다 높음(동: 남성 14.2%, 여성 29.5%)



자료: 최성은 외(2018), 《세종시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지원 방안》, 24~32쪽(아래 ※참고자료 참조)

30대 1인 가구 거주 분포 현황

- (30대 거주지역) 도담동 > 조치원읍 > 아름동 > 한솔동 > 중촌동 > 장교면 > 부강면, 연서면 > 금남면 > 연기면, 전의면 > 연동면, 전동면 > 소정면 순으로 30대 1인 가구의 거주비율이 높음
- (성별 특성) 30대 1인 가구는 남녀 모두 동 지역에 가장 많이 거주함(읍: 남성 21.3%, 여성 14.9%, 면: 남성 22%, 여성 11.4%, 동: 남성 56.8%, 여성 73.7%)



자료: 최성은 외(2018), 《세종시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지원 방안》, 24~32쪽(아래 ※참고자료 참조)

세종시 청년 1인 가구 현황과 그 시사점

1인 가구 거처종류 특성

- (성별 특성) 동 지역의 1인 가구는 남녀 구분 없이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, 조치원읍과 면 지역의 1인 가구는 대부분 단독주택에 거주함
 - 읍·면 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주거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. 실제 읍·면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동 지역 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(최성은 외, 2018:90쪽)

III. 시사점

● 세종시는 20~30대 1인 가구의 증가에 주목해야 하며, 연령별·성별 거주 특성을 고려한 상이한 정책 대응이 요청됨

향후, 세종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심화 연구 필요

- 실제 거주 중인 1인 가구의 규모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함
 - 세종시 읍·면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경우,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(세종시)가 상이한 경우가 많음
- 특히, 여성 1인 가구주의 연령세대별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
 - 타 지자체의 경우, 여성 1인 가구의 연령세대별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대상자들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
참고자료: 세종시 읍·면·동별 1인 가구 거주 분포 현황

	세종시			20대			30대		
	전 체	남 자	여 자	전 체	남 자	여 자	전 체	남 자	여 자
조치원읍	9,279	5,537	3,742	4,932	3,138	1,794	969	689	280
연 기 면	711	463	248	310	224	86	74	54	20
연 동 면	467	227	240	31	18	13	43	35	8
부 강 면	892	507	385	193	121	72	141	111	30
금 남 면	1,246	669	577	238	162	76	132	93	39
장 군 면	2,631	1,559	1,072	1,418	845	573	247	198	49
연 서 면	1,285	747	538	431	301	130	141	99	42
전 의 면	792	376	416	101	57	44	70	56	14
전 동 면	433	238	195	57	46	11	43	37	6
소 정 면	336	181	155	29	18	11	36	29	7
한 솔 동	2,344	1,184	1,160	591	256	335	757	457	300
새 름 동	-	-	-	-	-	-	-	-	-
도 담 동	3,684	1,697	1,987	983	353	630	1,222	659	563
아 름 동	2,416	1,146	1,270	291	143	148	826	471	355
중 촌 동	1,167	552	615	125	61	64	421	249	172
고 운 동	-	-	-	-	-	-	-	-	-
보 람 동	-	-	-	-	-	-	-	-	-
계	27,683	15,083	12,600	9,730	5,743	3,987	5,122	3,237	1,885

자료: 통계청(2016), <2016 인구주택총조사> 자료임.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 데이터 보드에서 제공되는 해당 자료 활용하여 재구성



I. 제언배경

- “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모범도시 조성”을 목표로 출범한 세종시에서는 동지역(행복도시)과 읍면지역 간의 역내 불균형 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논의되고 있음
- 세종시 불균형 문제해결은 잠재적 갈등요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이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

II. 세종시의 균형발전

- 세종시의 “균형”은 ‘인구’, ‘시설공급’, ‘공간구조와 기능’, ‘역량과 지속성’, ‘정서와 교류’ 등을 중심으로 정의할 수 있음

세종시의 균형상태(정의)	
인 구	• 인구가 신도시(동지역)에 편중되지 않고, 읍면지역에 안정적인 규모로 거주하여 균형이 유지되는 상태
시설공급	• 국가적 행복도시 건설과 병행하여 읍면지역의 노후시설이 정비되고, 생활필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 상태
공간구조와 기능	• 도시 성격의 신도시(동지역)와 농촌(면지역)과 경제거점(조치원읍)이 제 기능을 발휘하며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구축한 상태
역량과 지속성	• 자립적, 주체적 주민 인식과 역량을 토대로 주민 스스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
정서와 교류	• 모두가 세종시민이라는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, 이를 기반으로 동지역-읍지역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태

III. 불균형 실태 진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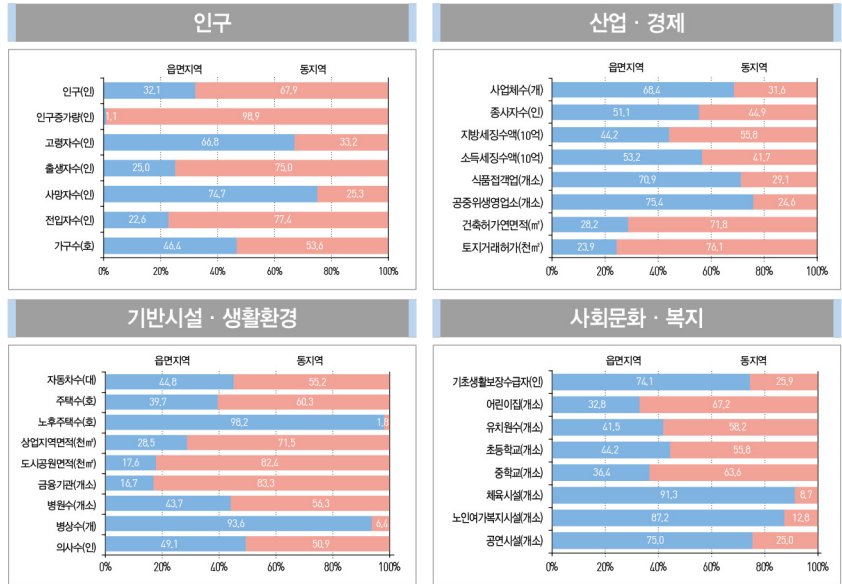
- 실태 진단을 위한 지표영역은 ‘인구’, ‘산업·경제’, ‘기반시설·생활환경’, ‘사회문화·복지’ 등으로 구분하고, 영역별 자료는 통계연보 등을 통해 조사·정리함



세종시 역내 불균형 실태 진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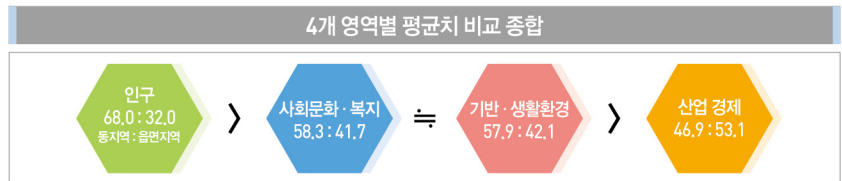
진단 1: 동지역-읍면지역간 비교(합계 100 기준)

- 세부항목별 비교 결과, 인구증가량(98.9), 금융기관(83.3), 도시공원면적(82.4), 전입자수(77.7), 토지거래허가(76.1) 등에서 동지역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

[영역별 동지역-읍면지역 비교]

- 영역별 평균값 비교결과, '인구(68.0)', '사회문화·복지(58.3)', '기반·생활환경(57.9)', '산업·경제(46.9)' 순서로 동지역 비중이 높음



진단 2: 동별·읍면지역별 비교

- 4개 영역의 세부항목별로 순위를 종합하고 각 영역별로 합산한 결과, 읍면지역 중 조치원읍 4개, 장군면 2개, 부강면, 금남면, 연서면이 각각 1개 항목에서 최고 순위로 나타남(공동순위 포함)



동별 · 읍면지역별 순위 종합

	동지역		읍면지역	
	최고	최저	최고	최저
인구	중촌동	도담동	조치원읍/장군면	전동면/금남면
산업 경제	한솔동	중촌동	조치원읍/부강면	소정면/전동면
기반시설 · 생활환경	아름동	중촌동	조치원읍/금남면	전동면/장군면
사회문화 · 복지	한솔동	아름동	연서면, 장군면/조치원읍	소정면/부강면

4개 영역별 순위를 합산하여 종합

종합	한솔동	도담동/중촌동	조치원읍/장군면	전동면/소정면
----	-----	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

진단 3: 지니계수 비교 · 분석

- 지니계수*를 활용한 불균형 진단 결과, 영역별로 불균형도가 가장 높은 항목과 낮은 항목은 다음과 같음
 - 인구: 인구증감률(0.790) ~ 출생자수(0.157)
 - 산업 · 경제: 토지거래허가면적(0.712) ~ 사업체수(0.136)
 - 기반시설 · 생활환경: 상업지역면적(0.632) ~ 금융기관(0.031)
 - 사회문화 · 복지: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(0.372) ~ 공연시설수(0.233)
- *지니계수: 경제분야의 불균형 정도를 파악하는 수치로, '0~1' 범위로 나타남. 0은 '완전평등', 1은 '완전불평등'을 의미하며, 일반적으로 0.4를 넘으면 소득분배가 불평등한 것으로 판단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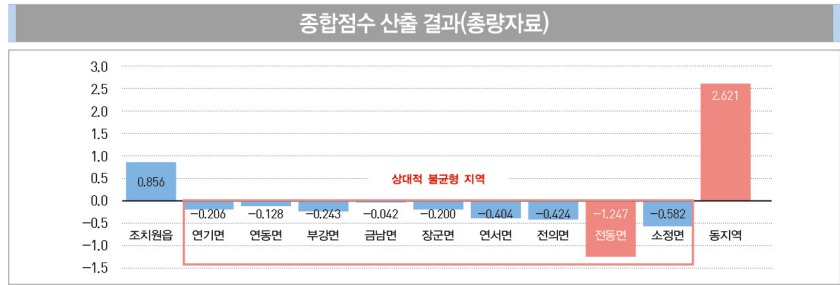


[영역별 지니계수 비교 종합(인구당 환산자료)]

세종시 역내 불균형 실태 진단

진단 4: 종합점수 비교 · 분석

- 영역별 표준점수를 합산하고 이를 재산정하여 종합점수를 도출한 결과, 동지역(2.621), 조치원읍(0.856) 등 2개 지역이(+)로 조사되었으며, 전체 면지역의 종합점수가(-)로 나타남



IV. 정책적 활용방안

지역별 전략

- 진단을 통해 파악한 '지역 여건'결과와, 세종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제시된 '지역별 주요 이슈'를 연계하여 읍면지역별로 추진가능한 전략을 제시함

지역별 추진전략(안)		
읍면	지역 이슈	전략 내용
조치원읍	위상 강화/공간 재창조	· 주거환경 개선, 산업기능 활성화, 주거복지서비스 확대
연 기 면	문화관광/기반시설/인프라	· 교통 · 생활인프라 확충 공급, 특화산업 육성
연 동 면	산업단지 강화/문화산업 창조	· 교통 · 생활인프라 확충 공급, 산업기능 활성화, 보육 · 교육서비스 개선
부 강 면	문화 · 역사/부강역세권	· 산업기능 활성화, 역세권 환경 개선 및 정비, 보육 · 교육서비스 개선
금 남 면	생활 · 교통인프라	· 교통 · 생활인프라 확충 공급
장 군 면	문화관광	· 보육 · 교육서비스 개선, 경제 · 산업여건 개선, 특화산업 육성
연 서 면	예술관광	· 경제 · 산업여건 개선, 지역 특화산업 육성
전 의 면	지역경제	· 산업단지 주변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, 특화산업 육성
전 동 면	철도, 특화산업	· 저소득층 지원 확대, 교통 · 생활인프라 확충 공급, 산업단지 주변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, 보육 · 교육서비스 개선
소 정 면	농촌 정주여건/소정리역	· 산업기능 활성화, 교통 · 생활인프라 확충 공급, 산업단지 주변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, 보육 · 교육서비스 개선

향후 관리방안

-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: 세종시 자체적으로 읍면동 단위의 자료를 상시 취합 · 관리하고, 정책, 연구 등에 활용토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
- 읍면지역 시설 · 서비스 지원 확대: 면지역(특히, 북부 면지역)의 기초생활지원서비스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서비스 지원에 주력함
- 불균형 심화가능성 차단: 세종시 건설의 근본취지가 '국토 균형발전'임을 유념하여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'모범 사례도시'로 건설되도록 노력해야 함



I. 제안배경

- 축산관련 환경문제가 지역사회 민감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
- 축사의 시설 현대화를 통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나,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어 현실적으로 모든 축산농가에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
- 세종시의 경우 지형적·기상학적으로 대기환기량이 적으며, 신도시 건설로 생활권이 확장됨에 따라 축산악취에 대한 민원제기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
- 세종시의 축산환경 현황을 파악하고, 축산악취 발생원 및 저감방법과 우수관리 사례조사 등을 통해 세종시의 축산악취 개선방안을 제시함

II. 세종시 축사시설 현황

가축 사육농가의 사육형태

- 세종시 가축사육 형태는 한·육우 및 젖소의 경우 대부분의 사육농가가 개방형 축사이며, 톱밥 및 깔개 등을 깔짚으로 사용하고 있음
- 허가대상 규모인 젖소 사육농가의 축사 내부 및 운동장은 주기적인 깔짚교체 및 비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어 비교적 깨끗한 것으로 조사됨
- 반면 소규모 젖소농가는 가축분뇨에 비해 깔짚의 양이 적어 함수율이 높은 퇴비가 방치되고 있으며, 퇴비사는 비가림막 또는 지붕이 없어 강우 및 악취 확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
- 젖소농장으로 등록된 농가 중 축종이 젖소에서 양계로 바뀐 경우도 있으며, 축사가 없어지거나 철거되어 축사 터만 남아 있는 농가들도 있음



지붕 외 가림막이 없는 개방형 형태의 축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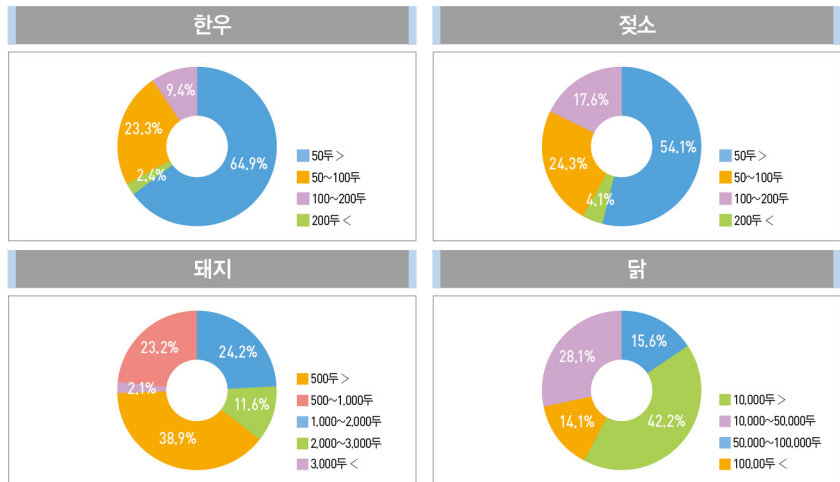
축종이 젖소에서 양계로 변경된 경우

축사가 없어진 경우

[그림] 세종시 한·육우 및 젖소 농가 실태

세종시의 소규모 농가 비율

- 일반적으로 사육규모가 작은 농가의 경우 악취개선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, 악취저감 시설 설치 및 시설의 개보수 비용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음
 - 악취제어 기술도입이 농가 경영을 어렵게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
- 세종시는 대부분의 축산농이 고령인 경우가 많으며, 사육규모가 작은 농가가 많음
 - 2016년 기준 돼지는 1,000두 미만 사육농가가 62.1%이며, 한우 및 젖소는 50두 미만이 64.9% 및 54.1%이고, 닭은 10,000수 미만인 농가가 42.2% 임



[그림] 축종별 사육두수에 따른 농가 분포

III. 정책제언

축산악취 실태조사 ·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

- 축산악취 대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· 분석이 우선적으로 필요함
 - 사육종, 축사형태, 지역에 따른 악취 발생농도 · 확산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한 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
- 실태조사 후 개선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분뇨배출 현황과 수거 및 처리능력 평가를 수행해야 함





- 악취관리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축사환경 개선, 분뇨 배출주기 향상 등을 들 수 있는데, 이를 위해 분뇨의 처리시설 능력 평가가 우선되어야 함

- 실태조사 · 분석 및 분뇨 처리시설 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악취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함
 - 분뇨처리 능력 부족시 악취 확산방지를 위해 탈취제, 확산방지시설, 탈취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
 - 추후 악취대책 지역 지정 등에 대한 고려를 검토할 수 있음

● 사육규모에 따른 악취저감시설 설치

- (돼지) 3,000두 이상의 사육농가 : 초기투자 비용 및 운영관리 등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국가지원사업을 통한 액비순환시설 등 설치 및 시설개선이 적절함
- 소규모 농가 : 단기적인 측면에서 사양관리, 축사 내 · 외부 청결관리 및 분뇨관리 등 기본적인 운영관리에 초점을 맞추고, 장기적으로는 밀폐형 축사로의 시설개선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함
 - 2020년 3월부터 퇴비화의 부숙도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적합한 교반시설, 퇴비장 확보 등 시설개선과 지속적인 교육 · 홍보가 필요함

● 효과적인 수거체계 마련

- 악취발생의 사전적 조치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축사시설에 분뇨를 적체시키지 않고 외부로 반출시키는 것임
- 1,000두 규모의 사육농가에서는 당일 배출이 가능함(근거 : 반출차량 규모 5톤, 돼지의 하루 분뇨발생량 원단위 5.1L/두 · 일 기준)
- 반면 세종시의 경우 500두 미만의 사육농가가 38.9%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농가단위에서 1~2일 이내의 즉각적인 반출은 어려우므로, 지역별로 묶어 분뇨 배출일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수거해 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(수거관리 시스템 도입)

●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

- 면단위의 사회적 기업 역할을 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
 - 정부의 악취개선 보조금 일부를 할애하여 분뇨수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(관리센터)를 구축 ·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

● 개별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 · 감독 및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확보

- 세종시 가축분뇨 개별처리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악취관리의 철저한 관리 · 감독이 필요함
 - 가축분뇨 개별처리 비율 : 한 · 육우 96.8%, 젖소 82.9%, 돼지 55.1%, 닭 · 오리 56.3%
- 실제 농가수 및 사육두수 현황과 통계자료가 상이하여 축종변화 및 운영유무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함
- 축사악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축사형태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한 DB 구축이 필요함

<http://www.dsi.re.kr>



 **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**
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

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(선화동)

Tel. (042) 530-3500 Fax. (042) 530-3528

발행인. 박재묵 편집인. 이윤희 등록일. 2017. 10. 30. 등록번호. 대전중, 바00008